



OK! 지금은
전남시대

2025 으뜸인재길라잡이

인터뷰 모음집



 전라남도·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5
으뜸인재
길라잡이

인터뷰 모음집



CONTENTS

순천대 이여원씨	● 4
KAIST 문강연씨	● 6
뉴욕 주립대 박사과정 입학 앞둔 목포 문수영씨	● 8
미래농업 설계 차세대 연구자 구희웅씨	● 10
텍사스 A&M대 박사과정 입학 앞둔 김민기씨	● 12
순천대 약학과 홍진우씨	● 14
순천대 석사과정 임용민씨	● 16
한영대 안전지킴이 이준 팀장	● 18
동신대 순천대 간호학도 ‘체담연구소’	● 20
美 메릴랜드대 박사과정 장지원씨	● 22
노르웨이 1부리그 진출 정다빈양	● 24
美 조지아대 박사과정 정채윤씨	● 26
목포혜인여고 2학년 채현서양	● 28
전남과학고 ‘으랏차차 세균맨’ 팀	● 30
한국창의예술고 3년 이혜원양	● 32
목포영화중 1년 김보민양	● 34
광양여고 1학년 이지해양	● 36
전남예술고 1년 김태은양	● 38
나산실용예술중 3년 김수산나양	● 40
여수석유화학교 1학년 이지환군	● 42
광양제철중 2년 황남경양	● 44
무안몽탄중 2년 강재은양	● 46
순천신흥중 1학년 김찬규 군	● 48
순천신대초 6년 강윤재군	● 50

데이터·AI로 전남 스마트팜 발전 돕고 싶어요

베트남 재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 등 글로벌 감각 익혀
“전남도 지원으로 고성능 장비 갖춰 데이터 분석·AI 연구 매진”

2025년 07월 9일(수)



“생태도시’ 순천에서 자라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면서 제가 가진 컴퓨터 공학, 데이터 기술로 내 고향 생태계를 지키고 싶습니다.”

전남도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미래리더 분야 으뜸인재로 선정된 이여원(25·순천대 컴퓨터공학과)씨의 꿈은 ‘환경을 지키는 AI 데이터 전문가’다. 컴퓨터 공학 기술을 환경 문제에 접목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고향인 전남에 환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생태수도’ 순천에서 나고 자란 이여원씨에게 환경은 늘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환경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는 대학 진학 후 베트남에서 참여한 프로젝트였다.

“베트남 학생들과 현지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폐기물을 재활용한 나노셀룰로오스 기반 사워 필터를 고안해 발표했는데, 이 아이디어로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며 언론에도 보도됐죠. 기술이 어떻게 실제 환경 문제 해결에 쓰일 수 있는지 체감하면서 강한 동기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의 시야는 세계로 향했다. 영국 셰필드대 어학연수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익혔고, 재영과협(재영 과학기술자 협회)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사고방식을 길렀다.

그가 전공인 컴퓨터 공학과 환경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는 ‘데이터’와 ‘AI’다. 특히 전남의 핵심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는 꿈이 크다.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아요.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작물의 생육 상태 데이터를 분석하면 자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죠. 현재는 데이터 분석 모델을 한 번 학습시키면 제 노트북이 몇 시간씩 멈춰 다른 작업을 하기 어려워요. 으뜸인재 지원을 통해 고성능 컴퓨터 장비를 갖춰 데이터 분석과 AI 연구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씨는 8일 일본으로 향한다. 일본 미야자키대와 함께 GX(Green Transformation·녹색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10일 간 일본에서 현지 학생, 교수진과 교류하

며 탄소중립에 대한 역량을 키우게 된다.

“GX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인데, 메타버스 기반의 스마트팜을 기획하며 자원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험들을 통해 얻은 지식과 역량을 결국에는 우리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씨의 최종 목표 또하나가 있다. 배움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후배들을 위한 길을 터주는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지역의 인재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도 시작했다. 광주·전남 지역 청년들이 모여 AI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커뮤니티 ‘테크티브(Techive)’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AI 생태계 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은 관련 정보나 교류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테크티브’는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죠. 이곳에서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저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 진로 특강을 하기도 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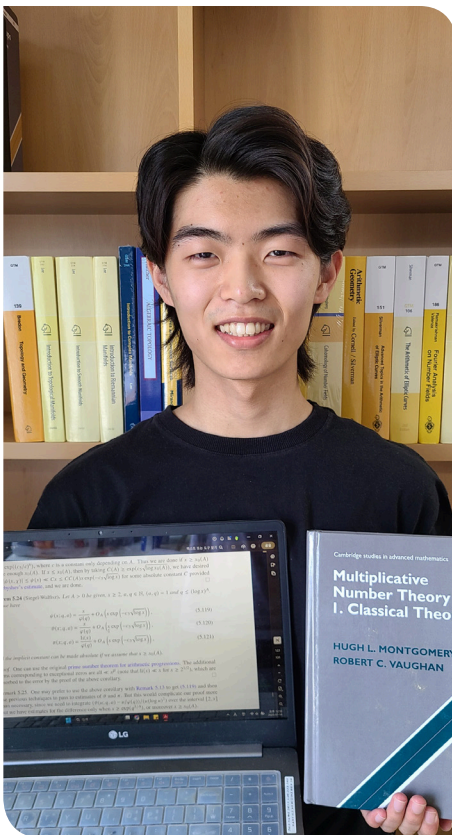
이씨는 “제가 받은 기회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다시 전남의 환경과 농업, 그리고 미래 인재들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며 “모든 활동은 결국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 앞으로 저의 활동을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학계 7대 난제 ‘리만 가설’ 산 넘겠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사교육 없이 수학 매력에 푹
“오류 없는 수학 교과서 집필 목표…지역 후배 도울 것”

2025년 07월 16일(수)



“달성 그 자체보다도 목표를 향해 도전하며 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 자체에서 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년 넘게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수학계 7대 난제 중 하나이자 ‘20세기의 숙제’라고 불리는 ‘리만 가설’. 그 거대한 산을 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청년이 있다. 해남에서 나고 자라 한국과학영재학교를 거쳐 현재 KAIST 수리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문강연(22)씨다. 최근 전남도 으뜸인재로 선정된 문 씨는 인터뷰 내내 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단단한 신념을 드러냈다.

문씨가 수학과 사랑에 빠진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다. 그는 “우연히 펼쳐 본 수학교과서의 내용들이 너무 재밌다고 느껴져서 그때부터 집에서 혼자 미리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며 “수업 시간 외에도 교과서를 따라가며 문제를 푸는 것이 즐거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의 열정은 남달랐다. 사교육 없이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 과정을, 6학년 때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까지 마쳤다. 그는 “중학교 수학을 처음 공부하다 막혀서 잠시 그만둔 적도 있었는데, 6학년 때 다시 보니 신기하게 문제가 풀리더라”며 “그때부터 심화 문제집을 구해 풀며 실력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진학 후, 사교육으로 무장한 전국의 수재들 사이에서 위축되고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남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가치관을 정립하며 꾸준히 노력했고, 3학년 때는 수학 동아리 회장을 맡으며 학업 성적을 극적으로 올렸다.

수학도인 그의 가장 큰 목표는 단연 ‘리만 가설’의 해결이다. 문씨는 “중학생 때 관련 교양서를 읽고 처음 이 문제를 알게 됐지만, 당시엔 지식이 부족해 수학적으로 이해조차 못했다”면서 “이 문제를 이해하겠다는 일념으로 영재학교에서 기반 지식을 쌓았고, 마침내 대학 수준의 복소해석학을 공부하며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AIST에 총장 장학생으로 입학,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꿈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이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스위스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EPFL)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시야를 넓혔다. 그곳에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리만 가설의 일반화 이론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일부 강의나 교재에서 누락되거나 생략된 부분을 발견하면서, 훗날 후학들을 위해 오류 없이 자세하고 깊이 있는 수학 교과서 시리즈를 집필하겠다는 꿈이다.

오는 9월 공군 입대를 앞둔 그는 군 복무 중에도 시간을 쪼개 공부를 이어갈 생각이다. 제대 후에는 학부 과정을 마치고 해외 유학길에 올라 본리만 가설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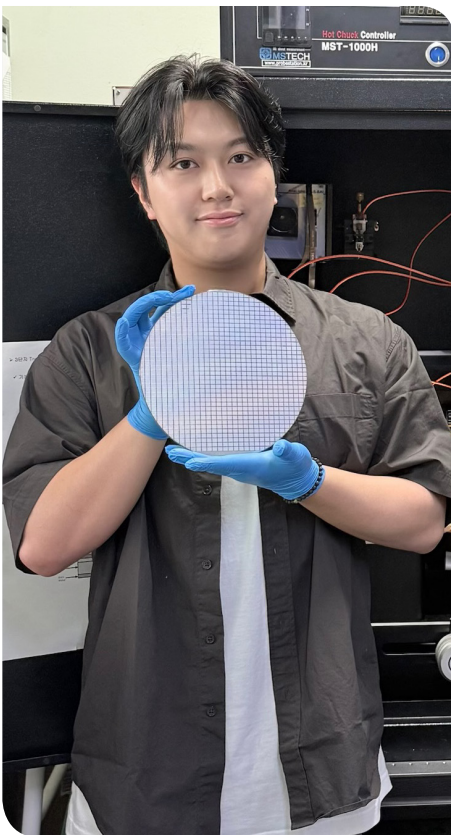
4남매의 장남이기도 한 문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접는 친구들을 볼때 안타까웠다”며 “나중에 교수가 된다면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강연도 하고, 장학금을 조성해 꿈을 향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꼭 응원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력 반도체 분야 세계적 연구자 되겠다

초 3때 행복센터 수업 듣고 과학에 관심...석사까지 ‘한 우물’
기술 선도국서 탄소 절감 노하우 익혀 지역 기술 자립 도울 것

2025년 07월 23일(수)



“고향인 목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받은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 지역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올 가을, 미국 뉴욕 주립대(SUNY) 박사과정 입학을 앞둔 문수영(28·사진)씨의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포부가 담겨 있었다. 목포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그는 ‘전력 반도체’라는 한 우물을 파며 세계적인 연구자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라남도 으뜸인재로 선정된 문 씨는 자신의 성장이 지역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의 과학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동네 행정복지센터의 과학 실험 프로그램에서 싹텄다. 이론으로만 배우던

과학 원리를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며 과학이 실생활과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다. 이후 목포대 과학영재교육원에 선발돼 과학적 사고와 실험 설계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았고, 이는 훗날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본격적으로 ‘전력 반도체’ 분야에 뛰어든 것은 석사 과정에 진학하면서부터다. 그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이 아닌, ‘와이드 밴드갭’이라는 차세대 물질을 활용한 소자 설계에 집중했다. 이 기술은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산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문 씨는 “단순히 성능 좋은 부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전 지구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의 연구 열정은 이미 13편의 국내외 논문 참여, 10회 이상의 학술대회 발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졌다.

그가 해외 유학을 결심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내외 학회에 참여하며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선진 기술과의 격차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소재, 공정, 장비 등 전반적인 인프라와 연구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꼈다”며 “기술 선도국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기반 속에서 실질적인 노하

우를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가 선택한 뉴욕 주립대는 미국 내에서도 독보적인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자랑한다. 특히 뉴욕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교내에 실제 반도체 생산라인(Foundry)을 갖추고 있어, 삼성이나 IBM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

문 씨는 “석사 시절 학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교수님의 추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뛰어난 연구자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에서 습득한 선진 기술을 국내에 환원해 학계와 산업계를 잇는 ‘기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특히 최근 나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화합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만큼, 지역 기술 자립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문 씨는 “기술이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고 믿는다”면서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과 기술 강연 등을 통해 제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고,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직농장’ 기술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만들 것

대학서 원예과학 학 석사...식물농장 기술력 갖춘 일본 유학길
“건물내에 인공적 환경제어 작물 재배...전남 주력 작물에 적용”

2025년 07월 30일(수)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수직농장’ 기술을 연구해 전남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남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으뜸인재’로 선정된 구희웅(30·사진)씨의 꿈은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차세대 연구자다. 목포대학교에서 원예과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박사 과정 유학을 준비 중인 그는 ‘일본 유학’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화실에서 태어나 고추 농사를 짓는 외할머니와 토마토 농사를 짓는 이모를 보며 자랐어요. 흙과 작물이 놀이터였죠. 자연스럽게 농업에 대한 친숙함과 존중을 배우며 자랐고, 초등학교 때는 장래 희망이 농부일 정도였습니다.”

구 씨의 원래 꿈은 농부였다. 하지만 대

학에서 4-H 활동을 하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농민들과 소통하며 느낀 것은 우리 농업에 인력이 부족하기보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더 절실하다는 점이었다.

“제가 직접 손을 넣어봐야 뜨거운 줄 아는 성격이라,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 연구를 통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연구자의 길을 택하게 된 계기죠.”

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팜, 시설원예 분야로 향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고품질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환경 제어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석사과정 동안 애호박 이산화탄소 시비, 파프리카 착색 모델 등 국책 과제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1저자 논문 4편을 포함해 총 9편의 논문을 작성하고 이 중 2편은 SCI급 국제 저널에 등재되는 등 연구 역량을 다져왔다.

구씨가 박사 과정 유학지로 택한 곳은 일본이다. 스마트농업 분야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지만, 그중 일본이 자신의 연구 방향과 가장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노지 농업, 네덜란드는 유리온실 기술에 강점이 있지만 이미 국내에 많이 도입된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은 ‘식물공장’, 즉

‘수직농장’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어요. 기후, 지리적 환경도 우리나라와 유사해 기술을 접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직농장이란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역 지하철역사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팜처럼, 건물 내부에서 빛, 온도, 양분 등 모든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처럼 예측 불가능한 기후는 노지 농업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수직농장은 외부 환경의 영향 없이 연중 내내 계획 생산이 가능합니다. 초기 전기료 등 비용 부담이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겁니다. 결국 수직농장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으뜸인재 선정이 그의 꿈에 날개를 달아줬다. 박사 과정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덜고 연구에만 집중할 자신감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도의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나중에 전남 농업의 핵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전남의 주력 작물에 맞게 적용하는 실용 기술을 개발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전남이 미래형 스마트농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역 어르신 맞춤형 주거 모델 개발하고 싶어요

장애인·노인 등 삶의 질 높이는 건축 전문가 될 것
고향에 돌아와서 후학 양성·정책 개발 참여하고파

2025년 08월 06일(수)



“건축가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넘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까지 책임지는 ‘사람 중심의 주거 건축’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환경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전남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으뜸인재’로 선정된 김민기(28·사진)씨는 주거환경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의 전문가를 꿈꾼다. 이달 말,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박사 과정 입학에 앞서 출국을 앞둔 그는 유학 생활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전북대학교에서 주거환경학으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더 넓은 학문의 세

계를 경험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막연히 건축가를 꿈꿨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건물 자체보다 그 안을 채우는 인테리어, 즉 실내 공간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하다 보니 주거 공간이 단순히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취약계층과 주거’라는 전공 수업이었다. 장애인이나 노인에게는 집 안의 작은 문턱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면서, 공간은 심미성을 넘어 모든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문이 조금만 좁아도 생활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석사 과정 동안 그는 노인 주거 분야 전문가인 지도교수의 가르침 아래서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건강 건축 분야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미국 유학을 결

심했고, 기나긴 입시 과정을 거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니다.”

김씨가 진학하는 텍사스 A&M 대학교는 건강 건축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건강 건축 인증 제도와 설계 기법을 배우고, 이를 노인 주거 환경에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고려한 설계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특히 전남의 실정에 맞는 노인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유학을 마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모교 혹은 전남지역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지역 연구기관에서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으뜸인재로 선정된 만큼, 전남 지역의 후배들에게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저처럼 해외 유학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어르신 건강한 노후 위해 바이오 전문가 될 것

노령질환 예방 신약 개발 꿈...지역 보건 의료 발전 기여하고자
으뜸인재 지원으로 도서지역 방문 '큰 힘' ...후배들도 챙기겠다

2025년 08월 20일(수)



“노인약물학과 노화 방지 바이오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남도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으뜸인재'로 선정된 홍진우(21·국립순천대학교 약학과 2학년)씨의 꿈은 지역 사회의 필요에 답하는 약학 연구자다.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차세대 인재다.

홍씨는 전남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전남 토박이'다. 성장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이 더 나은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우리 고향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인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그 첫걸음으로 지역 국립대인 순천대학교 약학과에 진학했다.

“처음에는 성적에 맞춰 약학을 선택한 면도 있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길이 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며, 제가 배운 지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하게 됐죠.”

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노인약물학'으로 향했다. 전남은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와 올바른 약물 사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홍씨는 노인 인구가 많고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이 많은 지역 특성상, 약물 오남용을 막고 효과적인 복용 지도를 하는 것이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약품분석학', '기초한약학' 등 관련 과목을 수강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홍씨는 학부과정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석사과정에도 진학해 관련 지식을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노령질환을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신약 개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백신특구 조성이 현실화되면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지역발전과 약학도로서의 자신의 비전을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그의 꿈은 단순히 학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대학 내 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현장으로 나선다.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복약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상담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으뜸인재에 선정됨에 따라 '도서지역 보건의로 탐방 현장체험비'를 지원받게 됐는데, 이를 통해 전남 도서지역을 찾아 노인들을 직접 만날 계획을 꾸리는 중이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소통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미래의 약학도로서 책임감을 다지고 싶습니다.”

홍씨는 으뜸인재로서 받은 도움을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약학 분야의 재능기부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동생들에게 '키다리 아저씨' 같은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가 으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기회를 준 만큼, 저 또한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학업과 봉사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지역의 보건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순천만 갈대에서 골다공증 해법 찾겠다

세포의 미세한 변화로 질병 극복 실마리 찾는데 매력
의약품 개발로 전남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기여할 것

2025년 08월 27일(수)



“전남의 풍부한 천연자원에서 고령화 사회의 대표 질환인 골다공증의 해법을 찾아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남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으뜸인재’로 선정된 임용민(27·사진)씨의 포부는 명확하고 단단했다.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일반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전남의 자원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인 연구자를 꿈꾸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문제는 과학 기술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골다공증 문제를 제가 나고 자란 이

땅의 자원으로 해결해보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생겼습니다.”

임씨가 골다공증 연구에 뛰어든 이유는 명확했다. 골다공증은 노년기 골질의 주된 원인으로, 한 번의 골절이 장기적인 와병 생활로 이어져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사회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기존 치료제가 있지만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나 투여 방식의 한계가 존재해,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는 그 해답을 전남, 특히 순천의 ‘천연물’인 갈대뿌리에서 찾고 있다.

“전남은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청정 자연 환경 덕분에 약용 가치가 높은 천연자원의 보고(寶庫)입니다. 그 중 순천 전역에 풍부하게 자라고 있는 갈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 갈대뿌리가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작용이 적고 장기 복용이 가능한 천연물 기반의 생리활성 물질을 발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가능성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갈대뿌리 추출물을 세포 단위에서부터 효능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세포독성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분화 억제 능력을 측정하며, 나아가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 분석 등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총동원해 작용 원리까지 명확

히 규명하는 것이 목표다.

“학부 시절부터 실험실 생활을 하며 이론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질병 극복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저희 실험실은 세포 기반 분석 시스템과 분자생물학적 실험 장비를 두루 갖추고 있어 연구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씨는 연구 성과가 단순히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꿈꾼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능성 소재를 지역 내 바이오 기업에 기술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 출시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순천시가 국가정원과 연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제 연구가 그 정책 방향에 힘을 보태는 작은 벽돌 하나가 됐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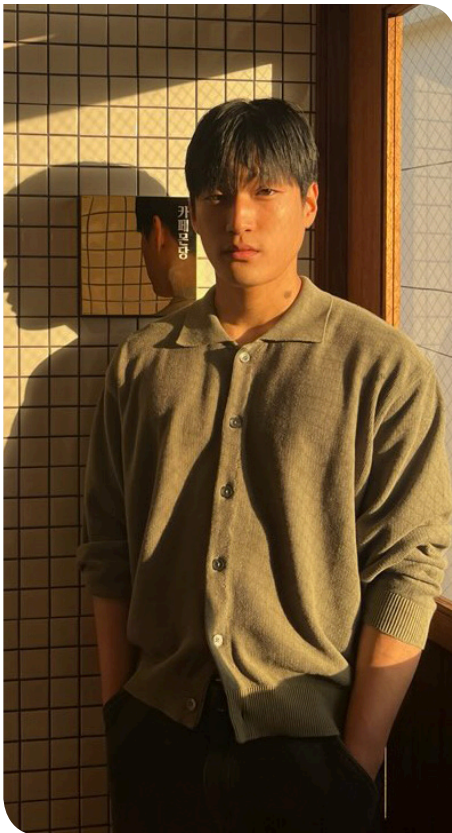
임씨는 끝으로 “ 으뜸인재 선정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연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며 “전남이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업 현장 ‘숨은 위험’ 해결 위해 힘쓰겠다

화공플랜트산업과 교수·학생들 ‘혁신적인 개방 방지 캠퍼스’ 개발중
“특히 출원 후 기술력 지역기업과 공유해 산업 안전 수준 높일 것”

2025년 09월 03일(수)



“결국 저희가 졸업하고 근무해야 할 산업 현장이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가 직접 구상한 기술로 미래 작업 환경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남도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 으뜸인재’로 선정된 한영대학교 ‘안전지킴이’ 팀. 팀장 이준(21·화공플랜트산업과 2학년·사진) 학생을 비롯한 9명의 학생과 지도교수(정문 교수)로 구성된 이들은 산업 현장의 ‘숨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이들의 목표는 ‘혁신적인 개방 방지 캠퍼스(Camlock) 장치 개발’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여수 출신인 이준 팀장은 지역의 주력 산

업인 석유화학 분야로 자연스럽게 진로를 정했다. 대학에서 ‘화공설비 안전’ 과목을 수강하며 현장의 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캠록은 호스나 파이프를 간단하게 연결하는 부품으로 산업 현장에서 흔히 쓰입니다. 하지만 진동이나 외부 충격으로 이음매가 풀리거나, 여름철처럼 온도가 올라가 내부 유체의 증기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작업자가 캠을 열면 압력 때문에 캠이 튀어 나가 화상이나 타박상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중 잠금장치 등이 있었지만, 호스 끝단 마감부의 압력 위험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안전지킴이 팀이 고안한 안전장치는 역발상에서 시작됐다. 통상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자동으로 열려 압력을 배출하는 ‘압력안전밸브(PSV)’와는 정반대다. 이들의 장치는 내부에 압력이 존재할 때 그 힘을 이용해 오히려 캠록의 잠금장치를 더 단단히 걸어 잠가 열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작업자가 내부 압력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개방이 불가능해 인적 실수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팀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을 제작하며 아이디어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후 금속 재질로 최종 시제품을 만들어 실제 현장에서의 내구성과 실용성을 테스트하고, 최종적으로는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유관 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저희 팀원 대부분이 졸업 후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과제를 넘어, 우리와 동료들의 안전을 우리가 직접 지키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작은 아이디어가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안전지킴이’ 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될 기술력과 경험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준 팀장은 “산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과 교육을 지역 기업들과 공유하며 지역 전체의 산업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의학·AI 결합 'K-웰니스' 세계에 선보일 것

전남 특산물로 이너뷰티 제품 개발... '한방 바이오산업' 기여
내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참가... 해외 진출 모색도

2025년 09월 09일(수)



“K-팝, K-뷰티에 이어 K-웰니스(Wellness)가 세계를 사로잡을 차례입니다. 저희는 한의학이라는 전통의 지혜를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전 세계인에게 '나만의 건강 솔루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간호학도들의 영동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K-웰니스의 가능성을 글로벌 무대에

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전남도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해외팀'으로 선정된 '체담연구소(CheDam Laboratory)' 팀의 포부는 당찼다. 동신대와 순천대 간호학과 재학생 6명으로 구성된 체담연구소팀은 한의학·간호학 분야 멘토 교수 3명의 도움을 받아

‘동양의학 기반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융합 연구’라는 과제를 들고나왔다.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인 ‘8체질 의학’에 AI 기술을 접목, 개인의 체질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이너뷰티(Inner-Beauty) 제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추천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팀을 이끌고 있는 박민(26·동신대 간호학과 3학년)씨는 “팀명 ‘체담’은 ‘체질을 담다’는 의미와 동시에 ‘체질을 포용하다’는 중의적 의미를 지녔다”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어 간호학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K-웰니스 솔루션을 연구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보통 간호학도들이 임상 분야로 진출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한의학을 접목한 기술 창업에 눈을 돌리게 됐다.

“동신대학교는 한방병원이 잘 알려져 있어 자연스럽게 한의학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K-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내 한의사 수가 늘어나는 등 K-의학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을 봤죠. 이 흐름에 맞춰 8체질 의학과 같은 우리 고유의 지식을 기술과 융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사업 계획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먼저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 자가 문진 결과와 생체 데이터를 입력하면 AI 알고리즘이 8체질을 분류해준다. 이후 분석된 체질에 따라 향산화, 미백 등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 원

료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고 건강 관리 루틴까지 제공한다.

최종적으로는 나주 배, 영암 감초 등 전남의 우수한 천연물을 활용해 이너뷰티 제품과 화장품 시제품을 직접 개발, 지역 농가 소득 창출과 한방 바이오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등 지역 전문기관과 기업을 탐방하며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기능제품(MVP)을 개발해 사용자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체담연구소는 오는 202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한다. CES를 통해 헬스케어 트렌드를 파악하고 글로벌 투자자 및 바이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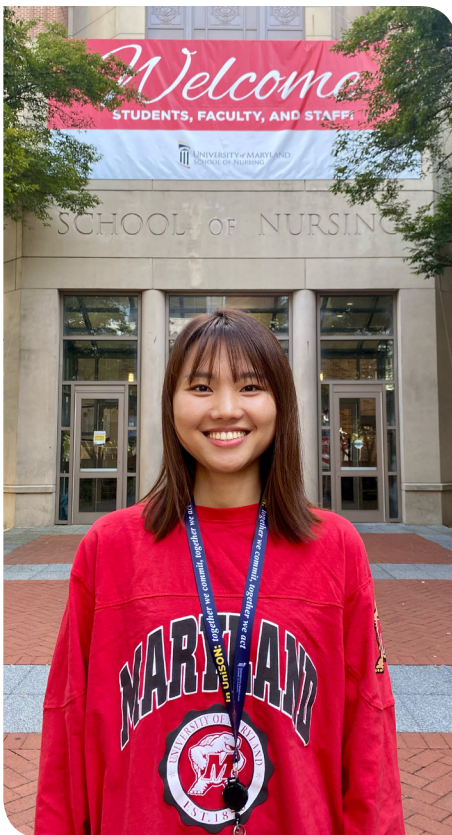
“단순히 CES를 참관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솔루션을 당당히 선보이고 싶습니다. 해외의 최신 뷰티 테크놀로지와 헬스케어 스타트업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며 저희 앱과 제품을 고도화할 겁니다. 학생 중심의 창업 활동이 지역 한방자원 산업과 만나 성공적인 융합 모델을 만들고, 저희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브랜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약자에게 집중되는 기후문제, 해법 찾겠다

영국 단체와 노숙자 봉사활동 등 ‘건강 형평성’에 관심
전남 어르신 폭염 대처 간호 프로그램 연구 진행할 것

2025년 09월 16일(화)



“전남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레 품게 된 ‘환경 정의’와 ‘건강 형평성’이란 화두가 제 학문적, 실천적 나침반이 됐습니다. 기후 문제가 과학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는 사회 문제임을 깨달았고, 간호학을 통해 그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전남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으뜸인재로 선정된 장지원(29)씨의 꿈은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간호학 연구자다. 광양에서 나고 자라 순천효천고를 졸업한 그는 최근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Ph.D. in Nursing) 과정을 밟으며 기후 위기 속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순천대 재학 중 편입해 가톨릭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그는 일반적인 임상의 길 대

신 더 넓은 세상으로 시야를 돌렸다. 영국 ‘Crisis UK’ 단체와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임상 연구원 근무,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 환경보건공학 석사 과정 등 그의 이력은 ‘건강 형평성’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큰 관심을 두었는지 알 수 있다.

“간호학은 단순히 병원 안에서의 돌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총체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학문이죠. 환자와 지역사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옹호자로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욱 중요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원 시절, 그는 볼티모어의 ‘노숙자를 위한 보건시설’에서 봉사하며 과거 인종차별적 도시계획(레드라이닝)이 폭염 노출, 녹지 부족 등 현재의 환경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했다. 이 경험은 ‘미국 내 도시 및 농촌 지역의 폭염 적응 전략 비교 연구’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물에 아이가 떠내려올 때 눈앞의 아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명의 아이가 떠내려온다면 상류로 올라가 왜 아이들이 물에 빠지는지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에게 상류로 올라가는 행위가 바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인, 빈곤층을 위한 예방적 간

호 증재 모델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는 박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폭염에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강신념모델 기반 간호 증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씨가 박사과정에서 연구할 과제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전남의 현실과 맞아있다.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야외 활동이 잦은 농어업 종사자가 많아 폭염 등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이나 간호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죠. 제 연구가 전남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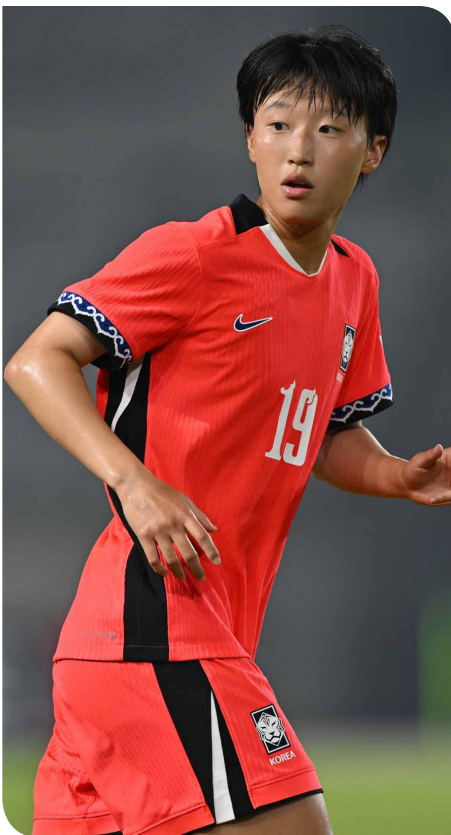
장씨는 이미 으뜸인재 활동의 일환으로 전남연구원과 함께 ‘기후재난과 전남의 간호 대응’을 주제로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이 국제적 활동으로 확장됐듯, 앞으로는 세계무대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시 전남과 나누는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나아가 전남의 사례가 세계의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데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2027년 브라질 여자 월드컵 무대에 꼭 서겠다

2023년 전국여자축구 등 '3관왕' ...전남에 전국체전 금메달 안겨
유소년부터 성인무대까지 국가대표에... “부상 딛고 재도약하겠다”

2025년 09월 23일(화)



“2027년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FIFA 여자 월드컵 무대에 서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겨루는 그날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전남도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으뜸인재(예체능리더)로 선정된 '한국 여자축구의 신성' 정다빈(19·노르웨이 스타 베크 포트발)의 시선은 2027년 열리는 여자 월드컵으로 향해있다. 최근 노르웨이 1부 리그에 진출하며 유럽 무대에 당당히 입성한 그는 더 큰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다.

“어릴 적 수영, 태권도 등 다양한 운동을 즐겼지만, 축구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하남 중앙초 4학년 시절, 동네 남자 축구팀에서

취미로 공을 차기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축구에 깊이 빠져들었죠. 결국 부모님께 정식으로 축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길을 걷길 원치 않았던 부모님의 반대로 정다빈은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약 1년간 축구를 벗어야 했다. 그러나 축구를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진심 어린 설득 끝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광양중으로 전학해 본격적인 선수 생활으르 시작했다.

그의 재능은 광양여고에서 만개했다. 중학교 시절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그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며 팀의 에이스로 거듭났다. 2023년 전국여자축구대회, 여자축구선수권, 전국체전에서 모두 우승하며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고, 특히 제104회 전국체전에서는 전남에 금메달을 안기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정다빈은 고교시절 활약상을 바탕으로 고려대에 진학했다. U-12(12세 이하)부터 U-20까지 연령별 대표팀에 모두 발탁된 정다빈은 마침내 A 대표팀(성인 국가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처음 태극마크를 단

그는 A매치 7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하며 빠르게 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열린 동아시아컵에서는 숙적 일본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오랜 기간 관심을 보여온 노르웨이의 스타베크 포트 발에 입단하며 유럽 진출의 꿈을 이뤘다.

정 선수는 자신의 성장이 전남도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으뜸인재로 선정돼 훈련 용품이나 재활 치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제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더 힘이 났습니다. 전남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에게 최근 작은 시련이 찾아왔다. 유럽 리그 데뷔 후 3경기 만에 부상을 당해 잠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다빈은 “부상을 당했지만 ‘스텝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재활에 전념할 생각이다”며 “빠르게 회복해 2027년 열리는 여자 월드컵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해, 더 높은 리그에 진출해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세계 잇는 교육 설계로 글로벌 인재 키울 것

학교-기업-지역 연계 부족...현장서 원하는 인재 찾기 어려워
'전남형 인적자원개발 고등교육 모델' 구축 위해 역량 쏟겠다

2025년 09월 30일(화)



“한 사람의 성장은 교육 제도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실현해주는 지역의 인적 자원과 공동체의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걸 몸소 체험하며 자랐습니다. 지역 인재가 세계적 수준의 학문과 진로를 경험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교육 설계자로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남도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으뜸인재'로 선정돼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인적자원개발(HRD) 및 고등교육정책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밟는 정채운(33·사진)씨의 목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목포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지역대

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정씨는 고용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교육 현장과 지역 산업 간의 괴리를 목격했다. “고용센터에서 취약계층 구직자들을 위한 진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이 개인의 삶을 바꾸는 힘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산업의 수요와 인적자원의 역량 사이의 큰 간극도 절감했죠.”

정씨가 만난 많은 지역 기업들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원했지만, 정작 대학이나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 과정은 현장과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 정씨는 “학교와 기업, 지역의 유기적 연계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깨달았다”며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고 평생교육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는 박사 학위 취득 후에도 학업에 대한 갈증을 느꼈고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미국행을 결정했다. 정씨는 고등교육과 HRD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자랑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 연구가 가장 활발한 조지아대학교를 선택했다.

“대학원 시절부터 교육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내에는 관련 연구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인적자원개발

학회에서 조지아대 연구자들과 교류하며 제가 구상하던 연구가 그곳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대학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어떻게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모델을 찾고 싶습니다.”

정씨는 유학을 마친 뒤 지역으로 돌아와 교수이자 정책 실천가로서 활동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유학을 통해 쌓은 학문적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접근하고, 지역성과 학문적 역량을 자산으로 삼아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정씨는 특히 지역 대학의 교육·평생교육학 기반과 연계한 ‘전남형 HRD 고등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씨는 “교육과 정책, 연구와 실천을 연결하는 사람으로서, 전남이 스스로 경쟁력 있는 학습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싶다”며 “이번 유학은 단순히 학위를 넘어 국제적 연구 역량과 실무적 교육 경험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정책 연구자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아프리카 발전 기여하는 국제개발 전문가 되고파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 위한 실질적 '가교 역할' 구체화
아프리카학부 진학 후 국제기구서 협력 방안 설계 목표

2025년 10월 14일(화)



“아프리카의 낙후된 공공시설을 보며 느꼈던 충격은 21세기 선진국과 공존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의문이었습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그 현지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개발 전문가가 돼 전남에서 느낀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전남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으뜸인재’로 선정된 채현서(목포해인여고 2년·사진) 학생의 꿈은 뚜렷했다. 채양은 지역 사회에서 시작된 리더십과 봉사의 가치를 국제 무대로 확장해,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개발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에서 나고 자란 채 양은 초·중·고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리더십 경험을 쌓아오며,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국제적 시야로 확장하는 데 주력해왔다.

“어릴 적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배운 ‘봉사’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회장, 과목부장, 동아리 부장 등을 역임하며 ‘의견을 모으고, 행동으로 연결하는 리더십’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채 양에게 전남의 ‘ 으뜸인재’로서 지역과 세계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열망을 심어줬다.

채 양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된 건 책에서 발견한 단어 때문이다. “아프리카 언어에는 ‘우분투(Ubuntu)’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분투는 ‘너와 내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의미의 리더십 정신이에요. 이 단어의 유래를 찾아보면서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깊이 탐구하게 됐고, 아프리카학부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특히 유럽 여행을 하면서 마주한 선진국과 아프리카와 같은 후진국 사이의 문명의 격차는 채양이 아프리카의 현실을 진단하고 격차 해소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시켰다.

채양은 한국외대 아프리카학부 교수진이 진행하는 스와힐리어 강의를 수강하며 언어 학습에 몰두하고 있다. 채양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학부 진학 후 국제개발기구 또는 NGO에서 활동하며, 아프리카의 교육, 농업, 환경, 기술 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

을 설계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채양은 이번 으뜸인재 선정으로 글로벌 이슈와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실현에 지원을 받게 됐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어와 영어, 해외봉사활동 참여 등이다.

특히 으뜸인재 지원을 통해 늘려나간 언어, 경험을 토대로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모의유엔대회(MUN)’에서 아프리카 대표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교내 글로벌현안연구부 부장으로, 모의 유엔 활동을 주관하며 아프리카 국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아직 제가 가진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으뜸인재 선정을 계기로 아프리카에 대해 더욱 많이 알아가며, 3학년엔 꼭 모의유엔대회에 아프리카 대표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채양은 자신이 겪은 한국 사회와 아프리카 사회의 격차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미래의 국제개발 전문가로서 이러한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전남이라는 땅에서 자란 제 뿌리는, 이제 세계를 향해 단단히 뻗어 나가려고 합니다. 전남의 이름으로 세계와 연대하며, 미래를 밝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후위기 극복 첨단소재 MOF 탐구하는 과학자 될 것

문희신·문희·이재영 학생, 이동국 지도교사
페플라스틱 분해 능력 검증·해결 방안 모색

2025년 10월 21일(화)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로 해양생태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고, 특히 페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과학도로서 자연 분해가 어려운 페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전남도가 진행한 ‘2024년 청소년 노벨캠프’

에 참여, 페플라스틱 코팅 분해 연구를 수행한 전남과학고등학교 ‘으랏차차 세균맨’ 팀의 팀장 문희신(2학년) 학생은 작금의 기후위기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문희신, 문희, 이재영 학생과 이동국 지도교사로 구성된 으랏차차 세균맨팀은 화학공학의 첨단 소재인 MOF(금속 유기 골격체)를 활용해

폐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배달음식 포장재처럼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코팅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어요. 기존에 세균이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연구는 있었지만, 효과적인 세균을 빠르고 정확하게 선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연구에 뛰어 들었습니다.”

팀은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세균의 플라스틱 분해능력을 시각적,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고안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연구팀은 플라스틱 분해 세균 검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세균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지 확인하려면 며칠이 걸리거나 복잡한 분석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러나 저희는 EWICON(Electrostatic Wet-Ink Coating) 방식을 응용해 배양 배지에 플라스틱을 매우 균일하게 코팅하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EWICON은 전기장을 이용해 플라스틱 입자를 배지에 정밀하게 도포하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코팅 시간이 크게 줄었고, 세균이 분해한 부위가 시각적으로 훨씬 명확하게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균을 선별할 수 있었다.

으랏차차 세균맨팀은 선별된 세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FT-IR(적외선 분광법)이나 주사

전자현미경(SEM)과 같은 첨단 분석 장비도 적극 활용했다. 쉽지 않은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역’ 신분으로 학업과 병행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솔직히 고3을 앞두고 실험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밤 늦게까지 실험했던 적도 많았죠.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의미 있는 연구를 한다는 성취감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문희신 학생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싶은 소망을 내비쳤다.

“이번 연구는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 실제로 세균이 플라스틱을 먹고 물질대사를 했는지는 정확히 할 수 없었어요. 추가 연구를 통해 이번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고, MOF 구조물을 직접 합성하고 이를 세균 효소와 결합해 재사용 가능한 필터를 제작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특히 문희신 학생은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MOF 연구진들이 선정된 만큼, 장기적으로 MOF 연구에 몰두 할 계획이다.

“MOF는 기후위기와 에너지라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OF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많은 이들에게 감동 주는 첼리스트 릴레요

중2 때 첼로 시작...강도높은 훈련으로 기본기 등 다져
장애인 음악 봉사 등... “아이들 꿈 키우는 지도자 될 것”

2025년 10월 28일(화)



“첼로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랑 비슷해서 연주자의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낮고 묵직한 첼로 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감싸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제 연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이 치유됐으면 합니다.”

전남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 으뜸인재’(예체능 리더)로 선정된 이해원(18·한국창의예술고 3년)양은 지역 사회에 음악적 감동과 희망을 전파하는 연주자가 꿈이다.

이 양은 초등학교 3학년때 첼로를 처음 만났다. “우연히 교내 오케스트라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소극적인 성격에 지원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단짝 친구가 함께 한다면 지원하게 됐어요.”

오케스트라는 여러 악기가 어우러지는데, 이양은 첼로를 택했다. 바이올린, 비올라와 비교해 저음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앞서 연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고 한다.

취미로 시작한 첼로는 이양의 진로를 바꿔 놓았다. 첼로를 켤수록 전문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커졌고, 마침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때 본격적인 첼리스트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이양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전문 연주자의 꿈을 정한 만큼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음악을 제대로 해 본적이 없었어요. 피아노를 잠깐 배워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년부터 제대로 해보려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후, 기본기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한 것이 음악의 연습 방법과 그 결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결정적 계기였어요.”

이양은 매일 새벽 6시 30분에 기상한 후 아침 연습을 빼먹지 않았다. 또 주 2회 현악 테크닉 및 합주 수업, 매일 1시간씩 기본기 반복 연습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실력을 다졌다. 특히 자신처럼 작은 체구에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첼리스트 장한나의 연주 영상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

반복된 훈련의 결과로 예술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광양의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에 진학 할 수 있었다. 전문 학교에 진학하니 또래 전공생들을 만나 음악적인 생각을 나누고 전문 교사들의 지도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양은 지역 내 다양한 콩쿨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양은 수도권과 비교해 부족한 연습 환경에서도 실력 향상에 부단히 노력함과 동시에 음악적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데 적극적이었다. 보호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 봉사를 자원했고, 장애인들의 날 기념행사 연주단에도 합류해 예술의 치유적 역할을 실천했다.

이양의 목표는 단순히 훌륭한 연주자로 남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가다. 이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또 전남도 으뜸인재 선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더 많은 희망과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다.

“첼로를 전공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컸어요. 다양한 음악을 접하기 어렵다 보니, 서울을 오가는 일도 잦았어요. 좋은 첼로 지도자가 돼서 지역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뉴욕 카네기홀에서 피아노 연주하고 싶어요

어머니 지도 아래 7세 때 시작...호남예술제 금상 등 두각
“세계적 아티스트로 성장해 지역민과 음악으로 소통할 것”

2025년 11월 04일(화)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서 저만의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매일 그립니다. 큰 무대에 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만의 연주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 이름을 꼭 기억해주세요.”

피아니스트의 꿈을 향해 질주하는 김보민 양(13· 목포영화중 1년·사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피아노를 단순한 악기가 아닌 ‘가장 재미있는 놀잇감’이자 삶의 목표로 삼은 김 양은 “끊임없이 즐기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보민양은 최근 전남도가 선정하는 ‘새천년 으뜸인재’ 예체능리더(피아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피아노 전공자인 어머니의 곁에서 자연스럽게 건반과 마주한 그녀는

일곱 살 때부터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머니께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힘든 순간마다 선배로서 공감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니, 그 믿음이 제겐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음악이 삶의 일부가 된 김 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크고 작은 무대에 오르며 연주 경험을 쌓았다. 수많은 반복 연습 속에서 지루함과 고통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수백번 연습 끝에 곡을 자유롭게 연주하게 됐을 때의 희열은 김양을 끊임없이 건반 앞에 앉게 만들었다.

이러한 꾸준함은 성과로 이어져 호남예술제 금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김양이 가장 값진 경험으로 꼽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언론사가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인터뷰 기사가 실리고 잡지에 사진이 게재된 순간이다.

“1등이라는 성취와 더불어 대중에게 제 음악을 알릴 수 있었던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 저를 더욱 분발하게 만들었죠.”

평일 4시간, 주말 7시간이라는 강도 높은 연습 스케줄로 인해 또래들과의 여유로운 시간은 부족하지만, 김 양은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으로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 연습 중 잠시 쉴 때는 올해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에릭 루의 연주 영상을 찾아보며 자극을 얻는다.

“지난 대회에서 우승에 실패한 후 재도전으로 우승을 일궈낸 에릭 루의 집념과 끈기는 저와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도전 정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김보민 양의 최종 목표는 에릭 루와 같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다.

“카네기홀을 넘어 국내외 최고 무대에서 ‘김보민’만의 음악적 색채를 구축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 고향인 목포에서도 자주 연주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번 으뜸인재 선정으로 지원받는 재능계 발비는 레슨비와 콩쿠르 참가비로 전액 활용될 예정이다. 김양은 이 장학금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보민 양은 “미래의 음악도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연주자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멋진 피아니스트로 성장해 언제나 곁에서 응원해주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희귀 난치병 환자에 힘 되는 약 만들고 싶어요

희귀병 진단 받은 뒤 약의 힘 체감...약사 꿈 위해 정진
중학생 때 굿즈 판매 수익금 장애인단체 기부로 표창

2025년 11월 11일(화)



“질병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약사를 꿈꾸는 희망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저와 같은 희귀 난치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약 개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남도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으뜸인재(미래리더 분야)로 선정된 이지혜(16·광양여고 1학년) 양은 자신의 아픔을 딛고 선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이 양의 꿈은 신약개발자다. 5년 전 ‘루프스’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지만, 좌절 대신 희망을 선택하며 자신의 아픔을 타인을 돕는 사명감으로 변화시켰다.

“처음 루프스 판정을 받았을 땐 겁이 났어요. 난치병이라고 하니 마치 시한부가 된 듯

한 느낌이었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어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약이 주는 힘을 체감하면서 신약 개발이나 약사라는 직업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양은 신약개발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뛰어난 학업 성취로 스스로의 역량을 증명해 오고 있다. 중학교 3년 간 상위 5% 성적을 유지했으며,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진학 후 상위권 학생들이 선망하는 ‘의생명과학 동아리’에도 가입했다. 당시 경쟁률이 5대 1에 달했을 정도로 치열했지만, 학업성과 면접을 통해 합격할 수 있었다.

이 양의 우수한 학업 성적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비롯됐다.

“평일 자정 이전에는 잠들지 않으려고 해요. 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유튜브와 같은 학업 관련 방해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꿈을 실현해 지역사회 상생에도 기

여하고 싶은 소망을 내비쳤다. 특히 중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 환원’의 가치를 체감했다.

“중학교 때 창업 동아리 회장을 맡아 광양을 상징하는 음식 등으로 굿즈를 만들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했어요. 수익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장애인 협회에 전부 기부한 경험도 있습니다. 덕분에 ‘광양을 빛낸 사람’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더욱 커진 계기가 됐어요.”

이 양은 이번 전남도 으뜸인재 지원금을 학원 수강료와 급식비 등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 양은 약사 면허 취득과 더불어 신약 개발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 으뜸인재 지원을 계기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신약개발자라는 목표를 꼭 이루고 싶어요. 특히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 외에도, 저와 같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겠습니다.”

한국 대표하는 무용수 돼 힐링 선사할게요

취미로 시작한 한국무용...화순전국국악대제전 최우수상 등 두각
재능 기부 등 봉사활동 “국립국악원 입단체 후배들 롤모델 될 것”

2025년 11월 18일(화)



“무대 위에서 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무용을 통해 받은 위로를 많은 이들과 나누는 무용수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무용의 매력에 푹 빠져 자신만의 춤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태은 양(16·전남예술고 1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한국무용을 통해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김양은 최근 전남도가 선정한 ‘2025년 새천년 으뜸인재’ 예체능리더(무용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김 양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취미로 한국무용을 시작했지만, 함께 춤을 배우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투병이 한국무용에 더욱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됐다.

“엄마는 무용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그 어느때보다 행복해하세요. 엄마에게 더 좋은 무대를 선보이고 싶어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이라는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김 양은 한국무용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매일 10여 시간씩 춤선을 가다듬었고 근력 운동도 빼먹지 않고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한국무용이 가진 한국적인 선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이 매일 연습실 거울 앞에서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같은 노력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 제10회 정읍전국단풍무용경연대회 대상, 제20회 화순전국국악대제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재능을 인정받았다.

김 양은 “끊임없는 연습과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가 나를 한층 성장시켰다”며 “무대에서 관객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수도권 학생들과의 격차는 존재한다. 그러나 올해 전남예술고에 진학하면서 한국무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만큼 실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계획이다.

무용 외에도 김 양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주말이면 요양병원을 찾아 어르신들 식사 배식과 청소를 돕고, 직접 공연을 펼치며 재능 기부도 실천하고 있다.

“무용은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단순한 활동을 넘어, 힐링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춤을 통해 마음의 심표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병원, 복지관, 지역축제 등 다양한 곳에서 무대를 만들어 삶에 지친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김양의 최종 목표는 전남도와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수가 되는 것이다.

“국립국악원이나 국립무용단에 들어가 지역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주는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번 으뜸인재 선정으로 레슨비와 콩쿠르 참가비를 지원받게 돼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넓은 꿈을 펼칠 디딤돌로 삼을 거예요.”

김 양은 끝으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며,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께 자랑스러운 무용수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악의 아름다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아쟁 연주하며 실용음악 공부도 병행...퓨전국악 꿈 키워가
담양전국국악경연대회 수상...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것”

2025년 11월 25일(화)



“전통 음악인 국악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올해 전남도가 선정하는 ‘ 으뜸인재 ’ 중 ‘ 예체 능리더 ’로 선정된 김수산나(15·나산실용예술중 학교 3년·사진)양은 아쟁을 통해 국악의 아름다

움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양은 초등학교 1학년때 방과후 수업의 일환으로 가야금을 익히게 되면서 국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국악 공연에서 우연히 듣게된 아쟁 연주음에 푹 빠지게 되면서 아쟁 연주를 시작하게 됐다.

“모든 소리가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특히 저음에 끌리곤 해요. 아쟁은 가야금과는 다른 주법인 데다 굽고 묵직한 소리에 점점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김 양은 국악 연주뿐만 아니라 실용음악 공부도 병행하며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대학 교육 특성화중학교인 나산실용예술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었다.

“기숙학교다 보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방과후 활동도, 자율동아리도 많아 예술적 감각을 올리는데 도움이 돼요. 특히 진로 체험을 많이할 수 있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김 양은 교내 취타대 일원으로 활동 중이며, 밴드부에서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고 드럼도 익히고 있다. 아쟁 연주 뿐만 아니라 현대음악에 대한 공부도 함께하면서 퓨전국악에 대한 꿈도 부풀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거문고 연주자이면서 퓨전국악을 선보이는 박다울의 연주를 보며 큰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국악의 전통적인 매력을 살리면서도 재미있는 리듬과 가락을 더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전할 수 있는 음악

을 하고 싶어요.”

여러 악기에 흥미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가장 애정하는 악기는 아쟁이다. 김 양은 담양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연주실력도 인정받고 있다.

전남예술고등학교 진학을 확정 지은 김 양은 “내년부터는 전남예술고에 진학하는만큼, 본격적으로 아쟁 연주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 곳에서 다른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과 융합 공연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양은 음악을 통한 나눔의 가치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지역 요양병원에서 아쟁 연주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 경험은 그녀에게 큰 보람이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공연을 보신 어르신들의 즐거운 표정과 따뜻한 미소를 보며, 연주하는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실수해도 격려해주는 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김 양은 끝으로 “전남도 으뜸인재 선정을 계기로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음악가로 성장하겠다”며 “국악과 현대 음악을 잇는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식·경험 나누는 전기 전문가 되겠다

전기·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박차...3D 모델링 학습 병행
독일·오스트리아로 연수... “마이스터고 후배에 지식 전수할 것”

2025년 12월 02일(화)



“제가 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혔듯, 후배들에게도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전수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또 다른 훌륭한 전문가가 돼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러가는 기술자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도의 ‘인재육성 고속도로 프로젝트’ 으뜸인재(마이스터 현장연수 부문)에 선정된 이지환(여수석유화학고 1학년)군은 전기 분야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학생이다. 지난 8월, 6박 8일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된 현장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 군은 한층 더 넓어진 시야와 깊어진 꿈을 통해 ‘전기 전문가’라는 목표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이 군은 중학교 시절 내신 성적 상위권을

유지할만큼 학업에 충실했지만, 대학 진학이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일찌감치 취업을 목표로 길을 정했다. 여러 마이스터고를 알아보던 중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에 입학, 공정계전과에서 전기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

석유화학고는 이름처럼 졸업생 대다수가 석유화학 업계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이 군은 전력 관련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석유화학업계 업황이 좋지 않은 이 유도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 때 들었던 과학 수업에서 전기회로 문제를 풀며 제가 전기에 흥미를 느끼고 좋아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전 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군은 마이스터 현장연수에 지원, 지난 8 월 유럽 산업현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번 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 스트리아의 ‘TU Wien 파일럿 팩토리’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산업 기술을 시연하고 다른 기업에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의 기술자 한 분이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로 돈을 버는 것보다, 전 세계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감명을 받았고, 저 역시 나중에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수는 비슷한 꿈을 가진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류하며 동기부여를 얻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 서로의 학교생활과 구체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학교로 돌아온 이 군은 학업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2학년 때 취득할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위해 꾸준히 공부 중이다. 방과 후에는 PLC(자동화 제어) 수업을 들으며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명령을 내린 대로 기계가 움직이는 자동화 설비 분야가 특히 재미있다”며 “3D 모델링 수업도 흥미로워서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군의 1차 목표는 2차 전지 분야와 관련이 깊은 지역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다.

그는 “취업 후에도 학업을 계속해 꾸준히 성장하고 싶다”며 “궁극적으로는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 현장 경험을 모아 모교나 전국의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리더 되겠다

몽골·중국·한국 잇는 다문화 배경...유럽 연수로 꿈 또렷해져
사교육 대신 자기주도학습...많은 예체능 활동으로 감성 키워

2025년 12월 09일(화)



“으뜸인재 해외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전남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전남도의 ‘인재육성 고속도로 프로젝트’ 으뜸인재에 선정돼 지난해 ‘글로벌 문화체험캠프’에 참가한 황남경(14·광양제철중 2학년·사진)양은 한층 더 구체화된 꿈과 넓어진 시야를 갖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평소 해외여행 브이로그를 즐겨보며 외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왔던 황 양에게 4주간의 유럽 문화체험은 미래를 그리는 나침반이 됐다.

황 양이 글로벌 인재의 꿈을 꾸게 된 데는 남다른 가정환경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가 몽골계 중국인이시고, 부모님 두 분 다 2~3개 언어를 구사하셔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덕분에 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황 양은 지난해 여름, 프랑스, 벨기에, 영국을 방문하며 책과 영상으로만 보던 유럽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가장 오래 머물렀던 영국에서는 현지 학교에 다니며 홈스테이를 통해 영국 학생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했다.

“빅벤이나 에펠탑을 화면으로만 보다 직접 보니, 마치 화면 너머로 들어간 듯한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는 한국 친구들이 K-팝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영국 친구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서로의 문화를 알려주며 교류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이번 연수는 ‘공부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계기이기도 했다. 황 양은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즐기며

자기주도학습을 해왔다.

수영, 복싱, 스피드스케이팅 등 운동으로 체력을 다지고, 피아노, 플루트, 첼로 등 악기를 다루며 감성을 키웠다. 이러한 학습 방식이 옳다는 확신을 영국에서 얻었다.

“외국 친구들은 학원에 거의 안 다니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도 연수 후 플래너를 쓰는 등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죠. 학원에 갈 시간에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프는 비슷한 꿈을 가진 국내 친구들과 교류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황 양은 연수에서 만난 한국 및 외국인 친구들과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황 양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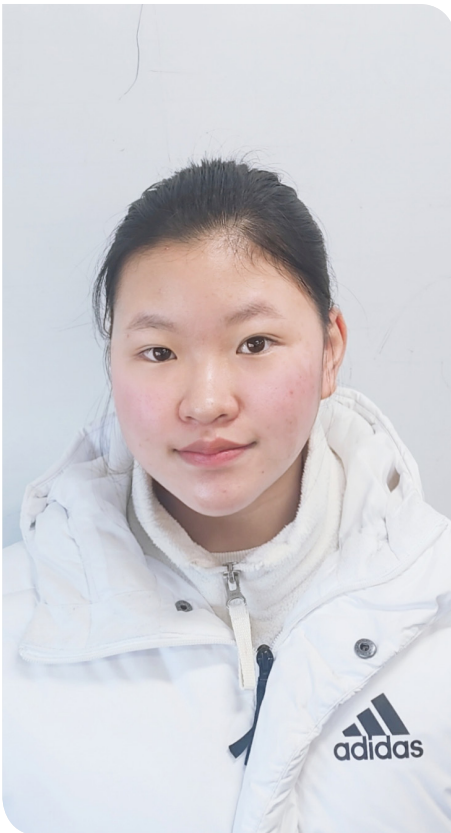
그는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뒤, 교환학생으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대기업에 입사해 저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제가 받은 좋은 기회를 후배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치아 국가대표 돼 패럴림픽 금메달 따겠다

29주 미숙아로 출생...생후 4개월부터 재활 뇌병변 장애 극복
전국대회 우승 등 두각... “장애인들 직접 찾아가 재능봉사할 것”

2025년 12월 12일(금)



강재은(14·무안몽탄중 2년) 양은 장애인 스포츠로 익히 알려진 ‘보치아’에서 전남 체육의 미래를 밝히는 유망주다.

강 양은 지난해 5월 목포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보치아 여자 중등부(BC2 등급) 개인전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재활을 위해 공을 잡은 지 8년 만에 얻은 값진 첫 전국대회 금메달이었다. 이어 8월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전국장애청소년보치아대회에서도 중등부 1위를 차지하며 그 실력을 입증했다.

포레보다 작은 체구에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강 양이지만, 표적구(잭)를 향해 공을 던지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한 눈빛을 내뿜는다.

강 양의 ‘금빛 질주’는 기적에 가까운 성장 드라마다. 29주 만에 1.2kg의 미숙아로 태어난 강 양은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를 안게 됐다. 생후 4개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된 재활 치료와 수술 속에서 강 양에게 희망이 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특수반 체육 시간에 만난 ‘보치아’였다.

표적구에 공을 얼마나 가깝게 붙이느냐로 승부를 겨루는 보치아는 ‘지상의 컬링’으로 불린다. 신체적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중증 장애인에 참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자, 고도의 집중력과 두뇌 싸움이 필요한 전략 스포츠다.

강 양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이 보치아의 매력”이라며 “경기를 할 때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꾸준한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제17회 전국장애 학생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중학교 진학 후 기량이 만개하며 올해 전남도 ‘새천년 으뜸인재(예체능 리더)’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 양은 으뜸인재 지원을 통해 장비 구입과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수업

과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팍팍한 일정 속에서도 최승균 전문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주 2회 집중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강 양의 롤모델은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여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정소영이다.

“정소영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외국 선수들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 체육관에 가고 싶을 정도로 멋져요”라며 “침착함이 장점인 정소영 선수처럼 패럴림픽 보치아 국가대표가 돼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의 전부가 아니다. 강 양은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를 꿈꾼다.

강 양은 “보치아라는 종목이 아직 생소해서 ‘장애가 있는데 운동을 할 수 있어?’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며 “국가대표가 되어 우리 지역에 보치아를 널리 알리고, 집에만 계시는 장애인분들을 직접 찾아가 보치아를 가르쳐드리려는 봉사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응원해주는 학교 친구들과 이찬미 선생님, 최승균 감독님,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전남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할 날을 기대해 달라”고 환하게 웃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따뜻한 친구’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고 싶어요

로봇은 호기심 넘어 ‘공존’ ...초등 방과후 로봇과학 들으며 꿈 키워
영재교육원서 AI·컴공 수업... “인류에 도움되는 로봇공학자 될 것”

2025년 12월 16일(화)



“위험한 재난 현장의 구조부터 집안의 설
거지까지, 사람을 돕는 ‘따뜻한 친구’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 전남도의 ‘2025년 새천년 으뜸인재
미래리더(공학)’로 선발된 김찬규(13·순천
신흥중 1년·사진)군은 로봇 이야기만 나오
면 즐거운 상상이 멈추질 않는다.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지만, 로
봇을 향한 김 군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공존’을 향해 있었다.

김 군의 꿈은 ‘따뜻한 로봇공학자’다. 어
릴 적 아버지와 함께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
며 로봇에 매료됐다는 김 군은 초등학교 시
절 방과 후 학교에서 로봇과학 수업을 들으
며 본격적으로 꿈을 키웠다.

김 군은 “처음에는 로봇을 직접 조립하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다”며 “점차 로봇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군이 주목하는 분야는 인공지능(AI)과 결합한 ‘휴머노이드(Humanoid·인간형 로봇)’다. 챗GPT처럼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거나 해결책을 텍스트로 제시하는 AI를 넘어, 사람처럼 팔다리가 있어 직접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 군은 “지금의 AI는 정보를 찾는 수준이지만, 로봇과 결합하면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거나, 집에서 매일 해야 하는 설거지나 빨래 같은 힘든 집안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며 “사람의 형태를 한 로봇이라면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김 군은 학교 공부는 물론, 주말과 방학도 반납한 채 배움의 길을 걷고 있다. KAIST 전남사이버영재교육원에서 수학·과학 통합 수업을 들으며 기초를 다졌고, 순천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는 AI와 컴퓨터 공학을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김 군은 지난 13일에도 여수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I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접했다. 김 군은 “학교 시험 기간에는 교과 공부에 집중하지만, 여유가 생길 때마다 각종 캠프와 체험 활동을 찾아다니며 전문을 넓히고 있다”고 했다.

김 군의 롤모델은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이다. 초등생 때 로봇과학 선생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그의 책을 읽고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꿈을 구체화했다. 김 군은 “데니스 홍 박사님처럼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의 앞으로의 목표는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해 수학과 과학, 그리고 공학적 지식을 더 깊이 쌓는 것이다. 김 군은 “우리 지역 전남의 과학 인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멘토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군은 “나중에 내가 만든 로봇이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고,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더 나아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구 지키는 친환경 에너지 과학자 될래요

생활 속 현상에 호기심 키우며 물리학 매력에 빠져
'감정 케어 로봇' 발명...과학의 따뜻한 가치 보여줘

2025년 12월 19일(금)



“물리는 우리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학문이자, 기후 위기 같은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해요. 전남의 으뜸인재로서 훗날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지구를 지키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전남도의 '인재육성 고속도로 프로젝트' 새천년 으뜸인재 과학리더로 선발된 강윤재(13·순천신대초 6년·사진) 군은 일상 속 사소한 현상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꼬마 물리학자'다.

내년도 중학교 입학 앞둔 강 군에게 과학은 단순한 교과목이 아니다. 강 군은 “과학은 우리 지구에 숨겨진 수많은 가능성을 탐구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도구”라

며 눈을 반짝였다.

강 군의 과학적 호기심은 책상 위가 아닌 생활 속에서 시작됐다. 우연히 긴 비닐봉지에 바람을 불어 넣는 장난을 치다 공기의 흐름에 따라 압력이 변한다는 ‘베르누이 원리’를 체득했고, 이 원리가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양력의 원리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을 깨닫고는 과학에 푹 빠졌다.

강 군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을 무작정 외기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며 원리를 깨우치는 과정이 즐겁다”고 말했다.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물리’다. 세상 만물의 움직임과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강 군은 순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접한 ‘초전도체 실험’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강 군은 “액체 질소를 부은 자석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모습(마이스너 효과)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며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수소로 로켓을 만들어 발사했을 때, 내 계산대로 로켓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물리학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회상했다.

강 군의 탐구심은 따뜻한 발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강 군은 순천 발명 아이디어 대회에서 ‘감정 케어 로봇’으로 입상하기도 했다.

강 군은 “미래 사회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감정을 나누고 위로를 건네는 로봇 친구를 상상했다”고 설명했다.

강 군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는 유체역학의 기초를 닦은 ‘다니엘 베르누이’다. 강 군은 “비행기가 발명되기도 훨씬 전에 공기 흐름의 원리를 밝혀낸 베르누이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 인류의 기술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군은 꿈을 위해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와 영재교육원 활동을 통해 기초 과학 역량을 단단히 다지고 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이미 학교 시험이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탁월한 성취를 보이고 있지만, 고전 소설부터 전문 과학 서적까지 폭넓게 읽으며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지식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 중이다.

강 군의 장래 희망은 ‘친환경 에너지 과학자’다. 강 군은 “물리학을 기반으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변환해 지구 환경을 지키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남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